

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③	2	⑤	3	①	4	③	5	④
6	⑤	7	④	8	④	9	⑤	10	②
11	①	12	②	13	③	14	③	15	②
16	③	17	⑤	18	⑤	19	④	20	③
21	③	22	①	23	④	24	⑤	25	①
26	①	27	②	28	⑤	29	④	30	④
31	④	32	②	33	⑤	34	③	35	⑤
36	①	37	⑤	38	②	39	②	40	④
41	①	42	②	43	①	44	③	45	①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을 이해한다.

발표자가 청중에게 발표 내용을 예상하며 듣도록 하는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발표자가 뮤직비디오에서 본 노리개가 인상적이어서 노리개를 발표 소재로 선택하였다는 동기를 밝히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발표자가 노리개가 무엇인지 청중에게 물은 후 대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 노리개의 주체에 염원을 담아 착용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노리개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노리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청중도 노리개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자료 3]은 호랑이 발톱으로 된 주체로, 호랑이 발톱이 액운을 쫓아 주기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에 노리개의 소재와 크기에 제한이 있었다는 설명을 하며 [자료 3]을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 노리개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명칭과 특징을 끈목, 주체, 술을 나타낸 [자료 1]을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② ㉠에 격식적인 느낌을 주고자 명절이나 혼례 때에 착용한 삼각노리개인 [자료 2]를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③ ㉠에 세 줄로 된 노리개가 한데 묶여 있는 삼각노리개인 [자료 2]를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④ ㉠에 호랑이 발톱으로 된 노리개의 주체와 이에 담긴 염원을 설명을 하며 [자료 3]을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자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청중 1’의 ‘발표를 들으면서 노리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었는데’와 ‘청중 2’의 ‘근데 남자들이 착용한 노리개는 어떤 모양의 노리개였는지 궁금해.’라는 내용을 통해 ‘청중 1’과 ‘청중 2’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청중 2’는 예전에 박물관에서 노리개를 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지만 ‘청중 1’은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지 않고 있다. ③ ‘청중 2’는 발표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발표 내용에 흥미를 갖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청중 1’은 아쉬웠다고 평가하고 있다. ④ ‘청중 1’은 ○○○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청중 2’는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⑤ ‘청중 1’과 ‘청중 2’ 모두 발표 내용

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측하고 있지 않다.

4. [출제의도] 기사문의 형식과 맥락을 이해한다.

기사문에서 전문은 기사의 핵심 내용을 압축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의 전문은 우리 학교가 ‘학교 공간 개선 지원 사업’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유휴 교실 활용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유휴 교실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유휴 교실 개선의 필요성’은 기사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기사문이 지닌 공적인 글쓰기 성격에 따라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교내 신문의 예상 독자가 학교 구성원임을 고려하여 지면 인터뷰 형식을 사용해 회의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회의 결과를 연재 기사 형태로 실어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⑤ 기사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로 이에 따라 학교 공간 개선 지원 사업 신청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B]의 ‘그러면 휴게 공간과 교육 공간의 성격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은 없을까요?’에서 사회자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A]는 참가자의 발언 내용을 되묻고 있지도 않으며 발언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하고 있지도 않다. ② [B]는 참가자들의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③ [B]는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A]는 그렇지 않다. ⑤ [A]와 [B] 모두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나, [A]만 다음 발언자를 지목하고 있을 뿐 [B]에서는 다음 발언자를 지목하고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토의의 자료 활용 방식을 이해한다.

(나)에서 교사 위원은 ㄴ을 활용해, 유휴 교실을 휴게실로 이용하자는 학생 위원과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ㄷ은 그러한 인식 차이를 부각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위원은 ㄴ을 활용해, 학생들이 유휴 교실 활용 방안으로 휴게실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교사 위원은 ㄴ을 활용해, 유휴 교실을 휴게실로 활용하자는 학생 위원의 제안이 교육청의 사업 취지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 ③ 학생 위원은 ㄷ을 활용해, 북카페의 내부 디자인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학부모 위원은 ㄱ, ㄷ을 활용해, 유휴 교실을 스타벅스 카페로 활용하자는 제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7. [출제의도] 토의의 내용을 이해한다.

교사 위원은 ‘북카페로 만든다면 교과와 연계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북카페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 위원은 북카페로 만들 경우 학부모 독서 모임 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사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위원은 북카페가 되면 교과 연계 독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유휴 교실을 북카페로 만들기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회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표제로 ‘유휴 교실, 북카페로 변신’이 적당하다. ③ 학생 위원은 유휴 교실을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교사 위원은 교육청 공문 내용을 토대로 교육 활동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⑤ 내부 디자

인 설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학생 위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다음 제2차 회의 때에는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내부 디자인 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에 따라 내용을 이해한다.

5문단에서 ‘울돌목이라는 지명의 유래’, ‘울돌목에서 떠올린 역사적 사실과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문단의 ‘좁은 길목을 빠져 나가는 ~ 이름 붙여진 곳’에서 울돌목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유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울돌목과 관련된 전설은 언급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운림산방은 소치 허련의 ~ 그림을 그렸다.’에서 운림산방의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3문단의 ‘봄의 기척이 ~ 농부들이 보인다.’에서 소포마을 들녘에 봄이 오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③ 4문단의 ‘이곳에서는 매주 ~ 공연이 진행된다.’에서 진도향토문화회관의 공연 시간과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⑤ 5문단의 ‘정유제란 때 ~ 현신을 역설하셨다.’에서 울돌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수업 내용을 떠올리고 있다.

9. [출제의도] 작문에서 매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

셋김작의 한 장면은 4문단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5문단에서 영웅의 지략과 민초들의 현신을 전달하는 영상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운림산방, 소포마을, 울돌목 등과 관련된 여정을 약도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탐방 지역의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진도 아리랑을 청각 자료로 제시하여 독자가 진도 아리랑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공연 정보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공연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을 썼는지 파악한다.

‘붉은 노을’, ‘집으로 향하는 발길’에서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적 배경이 저녁 무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금빛’, ‘붉은’에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닷물이 금빛 비늘을 퍼덕인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색채어 ‘파아란’, 비유적 표현 ‘도란거리는 섬들이 나타나지만,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내일의 여정에 대한 계획만 나타나 있다. ④ 색채어 ‘흰’이 나타나지만,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적 배경과 비유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섬들이 어개를 토닥이며’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조용히 저물고 있다.’에서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지만 색채어는 드러나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의존 명사와 조사의 품사 통용을 이해한다.

‘만큼’은 관형어 ‘노력한’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② ‘만큼’은 체언 ‘행’ 뒤에 붙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③ ‘만큼’은 관형어 ‘물랐던’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만큼’은 관형어 ‘바랄’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만큼’은 체언 ‘고향’ 뒤에 붙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12. [출제의도] 의존 명사의 선행어 및 후행어 제약을 이해한다.

의존 명사 ‘만’을 수식하는 관형어는 관형사형 어미 ‘-(으)르’과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있다.

[오답풀이] ① 의존 명사 '바'는 '바가'와 같이 목적격 조사 이외에 다른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없다. ③ 의존 명사 '무렵'은 '무렵에'와 같이 서술격 조사 이외에 다른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없다. ④ 의존 명사 '리'는 주격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있다. ⑤ 의존 명사 '채'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있다.

13. [출제의도] 시대 변화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현대 국어의 '살코기'는 중세 국어의 '술ᄃᆞ'와 '고기'가 결합하여 'ᄃᆞ 중성 체인'의 흔적이 남은 단어이다. 제시된 중세 국어 자료에 의하면, 'ᄃᆞ 중성 체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에는 'ᄃᆞ'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살코기'의 '살'은 중세 국어에서 단독으로 쓰일 경우 '술'의 형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안팎'은 '안'과 '밖'이 어울려 쓰인 것으로 '안ᄃᆞ'의 흔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 '수캐'는 중세 국어에서 '수ᄃᆞ'와 '개'가 어울려 쓰인 것으로 '수'의 'ᄃᆞ' 중성이 '-기'와 어울려 '키'가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④ 중세 국어에서 '나라'는 'ᄃᆞ 중성 체인'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할 경우 'ᄃᆞ'를 이어 적어 '나라히'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⑤ '암평아리'는 중세 국어에서 'ᄃᆞ 중성 체인'인 '암ᄃᆞ'와 '병아리'가 결합하여 '암평아리'가 된 단어로, 'ᄃᆞ 중성 체인'의 흔적이 남은 단어이다.

14. [출제의도] 서술어 자릿수를 이해한다.

'가다'의 경우 ㉠은 주어 '친구가'와 부사어 '서울로'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은 주어 '구김이'와 부사어 '바지에'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와 달리 ㉢은 주어 '시계가'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생각하다'의 경우 ㉣은 주어 '학생이'와 목적어 '진로'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은 주어 '우리가'와 목적어 '투표'를, 부사어 '의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5. [출제의도] 모음의 교체 현상을 이해한다.

'살피- + -어'가 [살피]로 발음되는 경우, 'ㅍ'는 반모음 'ㅍ'와 단모음 'ㅍ'가 결합된 것이므로, 어간의 단모음 'ㅍ'가 반모음 'ㅍ'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뛰어]'는 반모음 'ㅍ'가 어미의 단모음 'ㅍ'에 첨가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③ '[치리]'는 어간의 모음 '-어'가 탈락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④ '[끼여]'는 반모음 'ㅍ'가 어미의 단모음 'ㅍ'에 첨가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⑤ '[자서]'는 어간의 단모음 'ㅍ'가 탈락되는 현상에 해당한다.

[16-18] (희곡) 신명순, 「전하」

「전하」는 실제 역사적 사건인 세조의 왕위 찬탈을 소재로 학생들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 보는 극중극 형식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학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도하면서 학생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인물로, 틀극에서 내부극으로의 전환을 이끈다. 내부극은 '세조', '성삼문', '신숙주', '윤씨' 네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크게 세조와 신숙주, 성삼문과 윤씨가 각각 한 쌍으로 묶여 갈등의 축을 형성한다. 세조와 신숙주는 실리론을 대변하는 인물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왕인 단종을 몰아 낼 수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반면 성삼문과 윤씨는 명분론을 대변하는 인물로,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세조에 의한 성삼문의 처형과 윤씨의 자결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작품은 극중극 형식을 활용해 역사를 상대주의적으로 인식하여 과거의 사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데, 이는 각 인물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를 유도함으로써 관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이 얼마나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16. [출제의도] 대화의 양상을 통해 인물을 이해한다.

학자는 세조의 걱정에 대해 웃이나 말 등은 연극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는 대단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한다. 따라서 ㉠에서 학자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이 웃어넘기는 어투로 연기를 해 달라는 연출가의 지시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은 이후의 대사를 통해 '세조'가 연극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걱정하여 '학자'를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감이 넘치는 어투로 연기를 해 달라고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세조'가 궁중어가 서툰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무대 공간이 협소한 것을 걱정하는 어투로 연기를 해 달라고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뚜렷한 줄거리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성삼문'의 걱정과 불안감을 보여 준다. 따라서 다양한 연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걱정하는 어투로 연기를 해 달라고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상황을 복위시키려는 인물들을 폄하하는 '숙주'의 견해를 보여 준다. 따라서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어투로 연기해 달라고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인물의 대화를 토대로 쟁점을 파악한다.

'모두들 당신이 ~ 수 없어요.'와 '결국 그들은 ~ 죽음을 좋아하니까'에서 백성들이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윤씨와 숙주의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그들은 폭군에 ~ 위해 죽었어요.'와 '그들이 죽은 건 ~ 죽은 거야.'에서 사육신이 죽은 것이 정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윤씨와 숙주의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당신은 수양대군의 ~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군요.'와 '어느 의미에서는 옳지.'에서 세조의 폭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윤씨와 숙주의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배반이죠. 비겁한 배반이요.'와 '난 그들을 ~ 실패했을 따름이야.'에서 신숙주의 행동이 비겁한 배반이었던가에 대한 윤씨와 숙주의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철면피예요. 당신이 ~ 부정하실 생각이세요?'와 '그는 야심가지만 ~ 인연을 끊었어.'에서 신숙주의 배반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에 대한 윤씨와 숙주의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보기>를 통해 ㉠의 배우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내부극의 배우나 관객이 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에서 두 개의 배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이 ㉢에서 ㉤로 전환되는 것은 전원이 퇴장을 하고 시계 소리, 음악 등의 효과음이 나타날 때이다. 따라서 시계 소리, 음악 등의 효과음을 기점으로 ㉢에서 ㉤로 전환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좋아 그림 ~ 타개해 보게.'와 '뚜렷한 줄거리가 ~ 되는 거야.'를 통해 ㉢에서 학자가 ㉣에서의 줄거리를 한정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등장인물의 자율적 연기를 가능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옛날 의상 ~ 전혀 없잖습니까?'를 통해 옛날 의상을 입지 않고 ㉤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보기>의 컨벤션에 따라 그림에도 관객들은 ㉤의 배경이 조선 시대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제가 신숙주라는 ~ 저로서는 불쾌합니다.'를 통해 ㉢의 숙주가 신숙주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임을, '신숙주와는 같은 ~ 말이 나오나.'를 통해 ㉢에서 학자가 인물의 인식 변화를 위해 숙주에게 ㉣에서의 숙주 역할을 맡겼음을 알 수 있다.

[19~23] (운문 복합) '시에 나타난 운명론적 세계관' (가)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나) 정훈, 「탄궁가」 시에 나타난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이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삶이 있다고 믿는 가치관에 해당한다. 시에서도 화자가 운명론적 세계관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품들이 있다. (가)와 (나) 작품 모두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보이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나)의 화자는 자신의 운명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가)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고 있는 화자는 가난하고도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을 위로하고 있다. 화자는 '흰 바람벽'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흰 바람벽'에 연이어 지나가는 글자들을 바라보며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인식하지만, 자신은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여기며 스스로의 삶을 위로하고 있다.

(나) 정훈, 「탄궁가」

곤궁하면서도 궁핍한 생활에 대한 한탄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화자는 가난한 자신의 삶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난을 '궁귀'로 설정하여 일생 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궁귀를 내보내려고 하지만, 궁귀는 지금까지 회로우락을 함께해 왔으므로 떠날 수 없다며 화자를 나무라면서 꾸짖는다. 이에 화자는 결국 궁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가난을 받아들인다.

19.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안표누공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한간난인들 나같이 심했을까'와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등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 특정 공간이 언급되어 있는 있지만, 공간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에는 명령적 어조가 나타난 부분이 있지만, (가)에서 명령적 어조로 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20. [출제의도] 시상 전개 과정 이해한다.

[B]와 [C]에는 [A]의 '흰 바람벽'을 바라볼 때 떠오른 장면들이 나타나 있다. 화자는 [B]에서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움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C]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B], [C]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나타났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십오축 전등'이나 '무명사썩' 등 외부의 사물을 응시하다가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높고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기 긍정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E]의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에서 화자의 더 강화된 자기 긍정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D]에서의 자기 긍정의 정서가 [E]에서 더 강조되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D]에서는 애상적 정서도 나타나 있는데, [E]에서 화자는 자기 긍정의 정서를 강화하며 애상적 정서에 침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대부가 자신

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원수 궁귀를 어이하여 여의려노'는 원수와 같은 가난 귀신을 어떻게 해야 멀리 떠나보낼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화자는 가난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무능함을 자책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죽 쏜 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죽을 주니'는 주인이 종에게 농사일을 독려하려 죽을 끓여서 주인은 물만 먹고 건더기를 종에게 주며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종에 대해 권위를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대부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② '세시 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는 사대부 입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형편으로 세시 절기와 명절에 지내야 하는 제사를 해 올릴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과 그에 대한 한탄을 엿볼 수 있다. ④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에서 '다 나를 버렸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화자의 비관적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다. ⑤ '빈천도 내 분이어나 설위 무엇하리'는 가난도 자신의 분수이니 서러워한들 소용없다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궁핍한 현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2. [출제의도] 시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의 '오늘 저녁'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시간으로 내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의 '봄날'은 화자가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해야 하지만 궁핍한 현실로 농사조차 어려운 집안 형편을 절감하는 시간으로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은 화자가 과거의 고통을 상기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은 화자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므로, 시간의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은 화자가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은 화자가 가족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23. [출제의도]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가)와 (나) 두 작품 모두 운명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화자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자신을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달리 (나)의 화자는 가난한 삶에 대해 체념하면서 이를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에서 화자는 어려서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왔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하늘'이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가난을 운명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가)의 화자는 가난과 함께 외로움과 쓸쓸함까지 운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③ (나)의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 고루 하려마는'에서 화자는 사람들의 운명은 고르게 타고 나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프랑스 췌"와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에서 나타난 것처럼 화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들로부터 삶에 대한 위안을 느끼고 있으며, (나)의 '안표누공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한간난인들 나같이 심했을까'에서 화자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다.

[24~27] (기술) 강신준, 「핵심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은 수십 톤의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어 고층 건물의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설 기계 장비이다.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실 하단의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유압 장치를

이용하여 운전실을 들어 올린 후 운전실과 마스트의 빈 공간에 다른 마스트를 끼워 넣는 작업을 반복한다. 또 타워 크레인은 두 지브의 길이가 다르지만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레의 원리를 사용한다. 지레의 원리에 따르면 $FD=fd$ 일 때 지레가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길이가 짧은 카운터 지브에 무거운 콘크리트 평형추를 설치하여 길이가 다른 두 지브의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타워 크레인이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에는 도르래의 원리가 사용된다. 후크 블록에는 움직도르래가 사용되는데, 움직도르래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 준다. 하지만 일의 양은 같기 때문에 움직도르래의 힘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면, 권상 장치에 감긴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두 배가 된다. 또 후크 블록에 사용되는 움직도르래의 개수가 증가하면 힘의 이득은 늘어나지만 여러 가닥의 와이어로프가 꼬여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움직도르래의 개수가 제한된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이용해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높일 때에는 유압 장치로 운전실을 들어 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을 보면, 타이바는 타워 크레인이 평형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을 보면, 타워 크레인이 들어 올린 중량물은 트롤리와 선회 장치에 의해 수평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을 보면, 후크 블록에 여러 개의 움직도르래가 사용될 경우 와이어로프가 여러 가닥이 되어 바람에 의해 와이어로프가 꼬여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을 보면, 권상 장치는 일종의 전동기로 와이어로프를 원통 모양의 드럼에 감거나 풀어 후크 블록에 걸려 있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에 숨겨진 이유를 추론한다.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4문단에서 타워 크레인의 두 지브가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인 $FD=fd$ 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타워 크레인이 메인 지브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은 평형추의 무게와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FD 가 늘 일정하다. 또 ㉠에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같은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f 는 일정하지만 d 가 증가하여 fd 가 FD 보다 커지면서 타워 크레인이 메인 지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따라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A는 움직도르래 한 개가 사용된 후크 블록이고, B는 움직도르래 두 개가 사용된 후크 블록이다. 따라서 B는 A에 비해 동일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줄여 주지만, 동일한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릴 경우 권상 장치가 감아올린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길어지게 된다. 그런데 권상 장치가 감아올린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같다면 A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B보다 크므로 A가 한 일의 양이 B가 한 일의 양보다 더 많다. 또 A가 B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했다면, 동일한 중량물을 들어 올릴 경우 A가 B보다 중량물을 더 높이 들어 올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글에 사용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의 '제어하다'는 '상대편을 억눌러서 제 마음대로

다루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그러므로 '제어하다'를 '받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달하다'는 '일정한 표준, 수량, 정도 따위에 이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③ '연결되다'는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이어지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가 맺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④ '분산하다'는 '갈라져 흩어지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문맥상 '나누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의 피동형인 '분산되다'는 '나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감소하다'는 '양이나 수치가 줄다.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28~31]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월왕전」

「월왕전」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바탕으로 유교적 충의 사상을 나타내는 군담 소설이다. 어릴 적 부친과 헤어진 유실부가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천자를 구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서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심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은 19세기 오락성을 목적으로 간행된 방각본 소설 중 하나로서 긴장과 이완의 사건 구성, 전기적 요소의 활용, 단절 기법과 요약적이고 압축적인 서술 등이 잘 나타나 있다.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유실부는 연무대를 찾아 군사로 나서고자 했으나 천자는 유실부의 나이가 어려 쓸모없다며 출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천자가 호로왕의 침입으로 위기를 겪자 유실부는 출정해 천자를 구해 낸다. 이에 유실부는 천명을 어겼다며 천자에게 죄를 청한다. 따라서 유실부가 천자의 명을 어기고 출정한 일에 대해 천자에게 죄를 청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천자는 호로왕의 침입에 복문을 열고 도망을 가지만 길은 없고 산이 가리운다. 그러므로 천자가 복문을 나와 유실부가 있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최두와 왕건이 호로왕의 침입에 목숨을 잃자 송나라 군사들은 싸울 마음까지 없어진다. 최두와 왕건의 충성에 송나라 군사들이 전의를 불태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연무대를 나온 유실부는 부친 소식을 탐지하다가 한 주점을 찾아 밥을 사 먹는다. 유실부가 주점에서 부친을 간절히 기다린 것은 아니다. ④ 유실부는 주점에서 쉬다가 백발노인을 만나므로 유실부가 백발노인을 찾아다닌 것은 아니다.

29. [출제의도] 구성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은 '앞의 이야기를 하자면.'의 뜻을 가진 말로, 앞서 전개되던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해당 이야기의 과거 시점으로 되돌아감을 알리는 표지이다. 이 소설에서는 ㉠ 앞에서는 천자를 구한 사람이 소년 장수로만 언급되어 있다가 ㉠ 이후에는 그 소년 장수가 바로 유실부이며 백발노인을 만나 술법을 익히고 선관의 전언을 듣고 천자를 구하려 가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은 유실부의 정체를 밝히고 유실부가 천자를 구하기 위해 펼쳤던 영웅적 활약의 배경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 앞에서 천자를 구해 낸 인물이 소년장수로만 되어 있다는 점에서 ㉠ 이후에는 천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하기보다는 유실부의 정체와 활약을 부각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 이후에 천자가 조력자로 등장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 들고 천자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적장을 참했음을 보여 주는 사실적 장면이다. 전기적 요소는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고전소설의 전기적 요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천자가 쫓기다 '인검을 빼어서 자결코자 하는 것은 천자가 위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극단적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긴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② '아직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이고.'는 소년 장수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끄는 말로, 이를 통해 천자를 구해 낸 소년 장수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③ '불과 수년지내에 능히 재주를 통'했다는 진술은 유실부가 백발노인을 만나서 수년 내에 영웅적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재주를 획득했다는 것을 압축적인 서술로 나타낸 것이다. ④ 위태로운 황실의 상황을 듣고 '당돌히 전장에 참여하'여 적장을 물리치는 것은 백성된 자로서 천자나 황실의 위태로움을 듣고 이를 구해 내려는 것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31. [출제의도] 장면을 비교 이해한다.

[A]는 백발노인이, [B]는 선관이 유실부에게 천자의 위기를 알리고 구하러 갈 것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A]에는 세상에 나아가 천자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유실부가 수행할 임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B]에는 임무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A]는 현실 상황에서, [B]는 꿈 속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이다. ② [B]는 부디 때를 잃지 말라는 데서 행동의 시의성을 밝히고 있으나 [A]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③ [A]는 유실부가 천지조화지리를 알았다는 데서 상대의 능력을 근거로 한 발화라 할 수 있고, [B]는 용왕의 당부를 전하러 왔다는 데서 권위자의 명령을 근거로 한 발화라 할 수 있다. ④ [A]와 [B]는 모두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는 데서 상대의 명망이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32~36] (예술) 노영덕, 『플로티노스의 미학과 예술의 존재론적 지위』

이 글은 미의 본질을 탐구한 플로티노스의 예술론을 소개하고 있다. 플로티노스는 미의 본질을 균제라고 본 그리스의 전통적인 예술론을 비판하며 예술의 본질을 정신에서 찾았다.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플라톤과 달리 그는 예술이 정신의 아름다움을 질료에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는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예술이 지닌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예술의 본질이 가시적 외부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아름다움을 실현한 것으로 본 그의 예술론은 낭만주의와 현대 추상 회화의 근본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2.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이 글은 플로티노스의 예술론을 소개한 글로서, 그가 예술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미의 본질을 균제로 본 피타고라스학파의 인식이 1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③ 균제 이론을 비판한 플로티노스의 시각은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④ 예술의 가치를 폄하한 플라톤의 견해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의 견해 차이는 5, 6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⑤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은 중세 비잔틴 예술을 탄생하게 했으며 낭만주의와 현대 추상 회화의 근본을 마련한 의의를 지녔다는 내용이 7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33.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4문단을 통해 유출은 예지계에서 현상계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6문단을 통해 테오리아는 현상계에서 예지계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문단에 의하면 플로티노스는 예술이 우리의 영혼

이 현상계에서 예지계에 있는 일자로 올라가는 데 디딤돌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지계와 현상계가 정신에 의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의하면 일자의 속성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자의 속성이 위계적 차등을 두고 전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4문단에 의하면 미는 일자에서 질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추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일자에 가까운 정도를 기준으로 미, 추를 판단할 수 있다. ③ 4문단에 의하면 유출은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자의 속성을 하위 단계가 공유하게 됨으로써 일자, 정신, 영혼, 자연, 질료는 질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유출은 일자에서 질료의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6문단에서 테오리아는 질료에서 일자의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너스 석상이라는 예술 작품이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을 통해 피타고라스학파는 예술의 본질을 균제로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금 비율이라는 수적 비례는 균제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을 통해 플라톤이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라톤이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여신과 예술 작품으로서의 비너스 석상을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을 통해 플로티노스가 예술을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존재로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로티노스는 비너스 석상을 감상자로 하여금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존재로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⑤ 5문단을 통해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영혼에 내재된 미의 형상을 질료에 실현시키는 것이라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 따르면 비너스 석상 역시 예술가의 영혼에 내재된 미의 형상을 돌이라는 질료에 실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핵심 화제를 다른 대상과 비교한다.

5문단을 통해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선험적 관념상을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험적이라는 것은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는 예술의 본질이 현실 세계의 경험을 통해 지각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칸딘스키 역시 예술을 사물의 단계적 단순화가 아니라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 내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플로티노스와 칸딘스키는 모두 예술의 본질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관념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오답풀이] ① 플로티노스는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질료를 통해 실현시킨 것으로서 예술이 지닌 가치를 인정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플로티노스는 예술의 본질이 영혼에 내재된 일자의 속성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형이상학적 깨달음과 관련이 없다. ③ 객관적 법칙이 형식적인 구조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는 견해를 가진 이는 플로티노스나 칸딘스키가 아니라 피타고라스학파이다. ④ 플로티노스는 자신의 영혼에 정신의 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감각적 미라고 하며 예술의 가치를 인정했으므로 초월적 존재의 미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감각적 미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그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구질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독서 활동에 적용한다.

㉠ ㄱ. 귀납은 개개의 현상으로부터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을 그린다. 즉 개개의 현상, 즉 현상계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보편적 미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ㄴ. 연역은 보편적 원리로부터 개개의 현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연역적 표상은 경험에 앞선 선험적 관념을 형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로티노스의 예술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선험적 관념은 일자에서 비롯된 미의 형상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형상화한다는 것은 질료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7~42] (비문학 복합) (가) 장대익, 『진화론도 진화한다』 / (나)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

(가) 장대익, 『진화론도 진화한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소개된 주장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혈연 선택 가설에 의하면,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러한 해밀턴의 가설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도킨스는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을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런 행동일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도킨스의 이론은 유전자의 이기성을 바탕으로 동물의 여러 행동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동물의 이타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나)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진화 게임 이론 중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를 설명한 '반복-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반복-상호성 가설에서는, 개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자신이 이기적인 행동을 할 경우 상대방도 자신을 따라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반복-상호성 가설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를 한다고 본다. 즉, 개인 간의 생존 경쟁인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생존에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생존 경쟁인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따라서 집단 간의 경쟁에서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경쟁에서 생존할 경우, 이를 구성하고 있는 이타적인 구성원도 진화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 선택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단 선택이 이루어지는 속도보다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최근에는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7. [출제의도] 서술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나)에서는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반복-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와 (나)의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에서 각각의 이론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각각의 이론은 대립된 이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절충하는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타적 행동의 구체적 유형이 무엇인지 분류하고 있지 않다. ③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이론에서는 이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 있지 않다.

38.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에 의하면, 겉으로 보이는 개체들의 이타적인 행동은, 실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개체의 이기적 행동 뒤에 숨은 이타적인 동기가 아닌, 오히려 개체의 이타적인 행동 뒤에 숨은 이기적인 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유전적 근연도인 r 을 중심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③ 2촌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씩 늘어날 때마다 r 은 반씩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삼촌 관계일 때 r 은 0.5×0.5 인 0.25가 된다. ④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부모 자식이거나 형제자매 관계일 때 r 은 모두 0.5이다. ⑤ $0 \leq r \leq 1$ 이므로, $b=c$ 일 경우 해밀턴의 법칙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혈연관계일 때, b 와 c 가 같으면 이타적 유전자는 진화하지 못한다.

39.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A는 ‘TFT 전략’을 사용하므로 첫 회에는 협조 전략을, 두 번째 회부터는 B가 이전 회에 사용한 전략을 따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B는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하므로 두 번째 회부터는 모두 협조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첫 회에서는 A는 협조, B는 비협조 전략을 사용하고, 두 번째 회에서는 A는 비협조, B는 협조 전략을 사용한다. 그 결과 A와 B의 보수는 첫 회에서는 (-1, 2), 두 번째 회에서는 (2, -1)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회까지 얻게 되는 B의 보수의 합은 1이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개인 간의 생존 경쟁인 개인 선택에서는 우월한 개인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이 살아남게 된다. 따라서 개인 선택의 속도가 집단 선택의 속도보다 빠르면,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 구성원의 진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집단 내의 이타적 구성원은 이기적인 구성원과의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집단에는 이기적인 구성원들만 남게 되어 이타적 구성원이 진화하게 되는 집단 선택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오답풀이] ① 집단 선택의 속도가 개인 선택의 속도보다 느릴 경우 이타적 구성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② 개인 선택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③ 집단 선택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집단 간의 생존 경쟁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이타적인 구성원이 진화를 하지는 않는다. ⑤ 개인 선택은 개인 간의 생존 경쟁이므로,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개인 선택에 불리하다는 내용은 적

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다.

(가)의 해밀턴에 의하면, 개체들의 이타적인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다. 따라서 일개미와 자식 간의 유전적 근연도가 0.5이고 일개미와 자매들 간의 유전적 근연도가 0.75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일개미가 직접 번식을 하지 않고 자매들을 돌보는 이유는, 유전적 근연도가 높은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가)의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셈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법과 관습과 같은 제도’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혈연 선택 가설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 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친족이 아닌 부족원 간의 식량 공유 관습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42. [출제의도] 단어의 동음이의어를 이해한다.

㉠의 ‘감수하다’는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이고, ‘이 사건은 여러 전문가가 감수하였다.’의 ‘감수하다’는 ‘책의 저술이나 편찬 따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다.

[오답풀이] ① ㉠의 ‘관찰하다’는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의 ‘도태되다’는 ‘여럿 중에서 불편하거나 부적당한 것이 줄어 없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의 ‘유용하다’는 ‘쓸모가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의 ‘대응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3 ~ 45] (현대 소설) 이선, 「티타임을 위하여」

이 작품에서는 ‘나’의 가족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허영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내’는 아파트로 이사한 후 주민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티타임을 하자는 이웃의 말을 들은 아내는 그날부터 그럴듯한 티타임을 준비하기 위해 식기류나 온갖 간식을 마련한다. 그러나 티타임은 계속 연기되고 아내는 전전공공해 한다. 그러던 중 옛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며 집들이를 하던 날, ‘나’는 술에 취해 복도로 나가 이웃들을 향해 티타임을 갖자고 소리를 지른다. 그날 이후 아내는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힘들어졌으며 ‘나’를 원망하는데, 어느 날 출근한 ‘나’는 아내로부터 급작스럽게 티타임을 위해 이웃들이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 퇴근한 ‘나’는 기운이 빠져 앉아 있는 아내로부터 티타임 대신 떡 잔치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이쪽 사람들도 손으로 떡을 집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허탈해 한다.

4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중심인물인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의 전말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인물의 외양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교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인물들의 서로 대립되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

는다. ⑤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44. [출제의도] 사건에 따른 서술자의 심리를 이해한다.

‘어느 날’ 아내는 ‘당분간 밤참은 없을’ 것이라는 ‘폭탄선언’을 한다. 이에 대해 ‘나’는 서운해 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당분간 불필요한 지출이 줄겠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며 개운함을 느낀다. 이는 ‘당분간 밤참이 ~기분이 들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가 마음이 무거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그날’ 아내는 화보에서 보았으며 ‘자몽’을 사 온다. 이에 대해 ‘나’는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시끄러웠는데 왜 하필 자몽을 사온 것인지 의아해 한다. 이는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한동안 농약이 ~ 못했던 말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밤참을 내오기 시작한 ‘그날’부터 ‘어느 날’ 폭탄선언을 하기 전까지, 아내는 티타임에 사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간식을 구입하지만 밤마다 그 간식을 가족들에게 밤참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나’는 날마다 밤참이 제공되는 것은 티타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날이라도 티타임 ~ 간식을 제공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날 밤’에 ‘나’는 티타임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다. 이에 대해 ‘나’는 ‘그날 밤’의 소동 때문에 아내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렇다면 우르르 ~ 되돌아갔다는 말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때’에 피자 같은 음식이 아닌 떡을 먹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이웃들이 보게 되면서 아내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에 대해 ‘나’는 당시 아내가 느낀 부끄러움을 이해한다. 이는 ‘애들이 그때 ~ 그 기분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티타임을 더욱 그럴듯하게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소재이다. 또한 ‘하마터면 창피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에서 아내가 이전부터 티타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보’가 아내로 하여금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소재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아내는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가 위치한 동네를 ‘이쪽 동네’라고 칭하면서, 다른 동네에서라면 몰라도 ‘이쪽 동네’에서 구입한 자몽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아내가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아내는 우연히 가장하여 13호 여자를 만나 티타임 시기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는 언제 있을지 모를 티타임 때문에 간식을 사느라 불필요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내가 티타임을 아파트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이 늘자 티타임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아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망년회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엿들은 후, 13호 여자에게 자신도 망년회가 밀려 있다고 거짓말한다. 이는 주민들이 아내로 하여금 모방 심리를 불러일으켜 간접화된 욕망을 가지도록 하는 매개자에 해당하며, 아내는 이들에게 알보이고 싶지 않다는 경쟁 심리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아내는 티타임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13호 여자가 떡 잔치나 하자고 하며 손으로 떡을 집어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는 아내가 그동안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인 중산층의 삶에 대해 허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